

Preparation

전문경영인이 되기까지 두 번째 이야기

프롤로그 : 내가 선택한 1%

Interview

구본형 변화경영전문가 “좋은 사람에게서 배운 여유”

경영자로 가는 길

창업가 VS 전문경영인 - 나는 전문경영인이 되고 싶다

나는 이런 경영자가 되고 싶다(1) - 록펠러와 같은 생각으로 월마트 같은 기업을

유덕수 Upgrade

나를 찾아서, 새로운 시작

Reading Strategy

독서전략분석 : 4월 ~ 8월

덕수에게...

프롤로그 : 내가 선택한 1%

CEO를 준비하는 사람 중 99%의 사람이 CEO에 오르지 못하고 포기하거나 중간에 머무르게 됩니다. 왜 다수의 사람들이 CEO의 자리에 오르지 못할까요?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은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무한경쟁이죠. 그렇다면 1%에서 얻을 수 있는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CEO를 자신의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벤치마킹이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만의 스타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자신만의 특별한 원칙을 만들어야 1%에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CEO는 정해진 로드맵이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CEO가 되려면 잭웰치처럼 직원들을 위하고, 추진력이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완벽해 질 수 없고, 어떠한 문제에서나 장, 단점이 존재합니다. 정답은 없고, 최선이 있을 뿐이죠. 1%는 이러한 최선을 자신의 스타일과 맞춰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CPA나 MBA만 획득하면 CEO가 될 수 있다는 걸만 알고 준비하는 99%가 아닌 CEO의 속까지 파악하여 최선을 찾을 수 있는 1%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CEO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CEO를 나에게 맞추어야겠습니다.

이제 남은 날보다 지나간 날이 더욱 많아 졌고, 하나 둘씩 쌓인 벽돌도 어느 덧 네 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경영자 인터뷰를 위주로 이루어졌다면 두 번째 이야기에선 보다 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계속해서 쓰여질 분석물에서도 경영자로 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가치관 정립의 변화를 많은 부분 할애할 것입니다. 전역이라는 마라톤 출발선상에 들어서기 전에 숨을 가다듬고 이것저것 준비해봅니다. 뭐 빠뜨린 것 없나?

◆ 변화경영전문가 구본형소장님과의 만남

좋은 사람에게서 배운 여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언제나 설레는 일입니다. 자유로움이 물씬 풍기는 거리에서 자유로운 사람 구본형소장님을 만났습니다. 저 또한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녹음기 없는, 노트 없는 인터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남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헤어진 후 온갖 기억력을 다하여 노트에 옮겨 적었습니다. 힘들더군요. 하지만 좋았습니다. 다시 여유를 찾은 것 같아요.

사람들의 다양성을 인정하자

처음 경영자의 꿈을 품고 인간관계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결국 경영도 사람을 관리하는 것이죠. 경영자의 역할이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부터 사람들의 관계를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을 분석하려 했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분석하려고 했습니다. 어쨌든 저의 기준에서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의 다양성을 존중해 줘야 해요. 내가 상대방에서 존중받고 싶듯이 사람들도 저마다 자신을 존중받고 싶어합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흐른 후 나에게서 좋은 사람인가, 아니면 나쁜 사람인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겠죠. 좋은 사람만 만나기도 모자란 시간입니다.” 그동안 개인혁명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에게 저만의 방법을 고집한 것도 없지 않았습니니다. 나에게만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듯, 그들에게 그들만의 방법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려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은 관계를 시작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업을 경영할 때 기업이 커진다면 사람관리와 시스템관리를 함께 해야합니다. 어떠한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그 시스템에 혜택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겠죠. 경영자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조율해서 잘 이끌어 가느냐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문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문학은 사람을 아는 것이니까요.“

원점으로 돌아온 리더쉽

Next Society에서 피터드러커는 미래의 경영자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갖은 수많은 유형의 경영자가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철수연구소의 안철수사장님도 외국의 한 강연에서 리더쉽은 굉장히 많은 유형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 연구기관에서 세계의 대표적인 리더들의 리더쉽을 분석하여 하나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이상적인 모델이었죠. 매우 카리스마 적이면서도 자상했고,ダイナ믹하면서도 꼼꼼하고, 결국 상황에 따라, 분야에 따라 해당되는 리더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시대가 요구하기도 하죠.” 정문술사장님의 지난 인터뷰에서 우리는 빌게이츠나 잭웰치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바탕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바탕 위에 저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경영자의 관점에서 변화 바라보기

요즘 군대는 한창 변화의 물결입니다. 임무분담제, 구타 등 계급이 낮았을 때 힘들게 일해왔건만 이제는 평등하기 위해 다 똑같이 일해야합니다. 받아들여야 하는데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적어도 경영자가 된다는 제가 변화 앞에서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우리 삶 속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변화죠. 변화가 일어나면 다양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화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겉으로 내색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경영자는 이런 다양한 현상들을 파악하고 그들을 설득해야합니다."

계획과 실천력의 조절

많은 계획을 세우면서 계획을 조절할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실천력이 약하다면 그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 갖은 방법을 다 해보자 정도였습니다. “기획력이 높아도 실천이 약하다면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획과 실천이

안정감 있게 만나는 중간 지점이 가장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천력, 끈기를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역 후 2003년은 저의 실천력을 시험해 보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나”에게 맞추어 가야겠습니다.

차를 마시며 사람의 여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달려온 건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군대라는 곳에서조차 여유 없이 살진 않았는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일을 추진한다고 해도 여유가 없다면 금방 지치고 힘겨워 할 것입니다. 오늘, 좋은 사람에게서 여유를 배웠습니다.

나는 전문경영인이 되고 싶다.

창업은 매력적이었습니다. 대학을 입학한 2000년은 그야말로 벤처기업의 세상이었습니다. 결혼후보 1순위도 벤처기업가였으니까요. 벤처중소기업학이라는 5년이라는 짧은 역사를 지닌 학과를 선택했고, 창업동아리 활동도 열정적으로 임하면서 점점 경영이라는 학문에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좀 더 크게 보기 시작하면서 하나, 둘 문제점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창업의 3요소는 사람, 자본, 기술인데 저는 경영을 전공하기 때문에 기술을 잘 아는 기술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기술적인 아이템을 내는 것에 큰 한계가 있었죠. 특히 자본 없는 창업에선 기술적인 아이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초창기 창업 시 테크노CEO가 자주 등장한 것도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영은 경험을 통한 대학원의 이론습득이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경상계열의 제가 지속적인 노력을 수반한다면 저는 경영전문가지, 기술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경영전문가가 기술을 몰라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기술의 구체적인 면보다는 전반적인 흐름을 보는 것의 차이겠죠. 창업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면 그들 보다는 경영을 더 잘 알겠지, 그들이 창업을 해서 회사규모가 점점 커진다면 경영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경영을 전문적으로 준비한 사람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필요한 시기는 이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고민은 창업에 관련 없이 저는 경영을 좋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백지상태로 돌아가서 내가 경영을 좋아한다면 어떻게 해야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던 중 평소에 즐겨 읽던 송병락교수님의 이야기 경제학에서 미엑스-월마트의 총 매출이 한국 30대그룹과 맞먹는 다는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나라의 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회요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을 세계 10대기업 안에 드는 글로벌 기업으로 만드는 최초의 경영자가 되자! 그것이 창업을 하는 것보다 경영을 좋아하는 저의 가치를 더욱 빛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의 중심키워드는 전문경영인이었습니다. 휴넷의 조영탁 사장님이 지으신 100억 연봉CEO라는 책을 접하고 조영탁사장님과 인터뷰하면서 점점 전문경영인이란 시장에 매료되었습니다. 지금은 각종 신문과 책을 보며 전문경영인 시장을 더욱 확신 있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간의 싸움 끝에 “일을 즐길 줄 아는 전문경영인”이란 비전으로 “한국기업의 글로벌 10대기업화“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정할 수 있었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록펠러와 같은 생각으로 월마트같은 기업을

아직 봉사로부터 오는 보람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나쁜 사람으로 낙인찍히고 생을 마감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왕이면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제가 잘 되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좀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한다면 좋은 사람이 되겠지요.

군에서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자기가 하고싶은 일이 있는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집안 사정이 어려워 자기는 바로 돈을 벌어야한다며 자신이 하고싶은 일을 물어두는 눈치였습니다. 저의 가치를 목표가 주는 설레임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데 쓰고 싶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미래를 준비하는 저는 너무도 부유한 아이입니다. 하지만 환경 때문에,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는 생존문제를 해결하는 데 급급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어둡게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저는 증권이나 금융업은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있는 사람들의 환경을 더 부유하게 만드는 쓸데없는 짓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간접적인 도움이 되겠지만 저와 같은 서민들에게 보다 좋은 환경에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면서 목표를 통한 설레임을 누릴 수 있게 해주고 싶습니다. 미국의 월마트라는 기업 하나만 있으면 우리나라의 실업은 해소가 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록펠러는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사회발전에 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 문제없이 밝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미국의 록펠러와 같은 생각으로 월마트 같은 기업을 세우고 싶습니다.

나를 찾아서, 새로운 시작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한 선배가 많은 경영자들을 인터뷰하는 것이 좋지 않다며 저에게 한 충고입니다. 목표를 정한 이후 교수님을 뵙고, 경영자 분들을 인터뷰하고, 선배들과 얘기하며 느낀 것은 경영자가 된다는 문제를 두고 굉장히 많은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로드맵, 다양한 리더쉽 등이 저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동안 복잡했던 머리를 안정시키고 하나하나 정리해 봅니다. 어느 것이든 다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독서만 보면 다독과 정독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인데, 다독은 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 있지만 깊이가 없다는 점, 그리고 정독은 깊이 알 수 있지만 넓게는 보기 힘들다는 점, 둘 다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다양한 진로를 두고 중요한 건 제 스타일과 가장 맞는 것을 추구해 나가야 경영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한 가지 질문이 저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내 스타일은 뭐지?” 결국 경영자가 목표라고 했지만 전 제 스타일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너무 틀에 맞추어 나간 건 아닌지? 제가 가는 길을 제 3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부족하진 않았는지? 마음이 바쁘면 중요한 것을 놓치기 쉽다고 합니다. 마음에도 여유가 있어야 자신이 하는 일을 돌아보며 그것에서 중요한 것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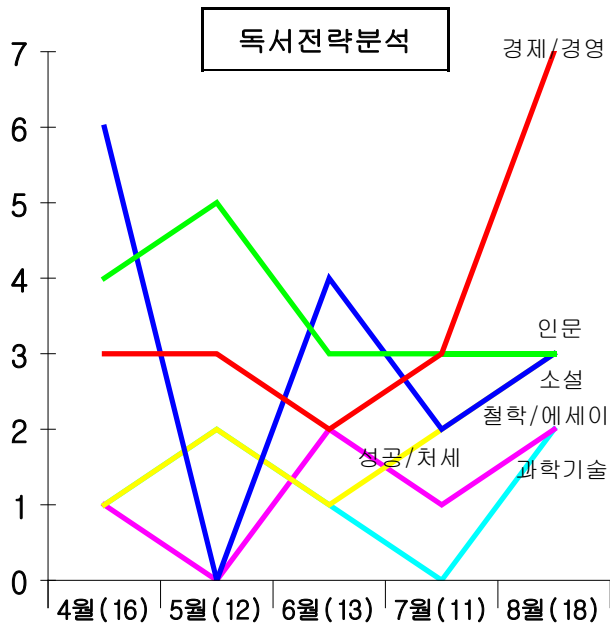
군 전역 후 목적지 없는, 시간이 정해지지 않는 나를 찾는 여행을 잠시 다녀올까 합니다. 본질적으로 아무 것도 알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떠난 후에 조금은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군 전역 후 2003년은 본래 계획한 활동보다 더 많은 활동을 계획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다양성을 접하고 그것에서 무엇이 내게 어울리는지를 알아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이 나와 어울리는지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간동안에 가장 많이 들었던 “지금의 나이 때 밖에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독서전략분석 : 4월 ~ 8월

■ 독서의 목적

무슨 일을 하든지 상식의 함양은 인간의 기본을 구성하는 바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분야로 기울 경영/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좋아하지 않는 비 관심분야까지 다양한 분야의 책을 접하여 덕수의 바탕을 만들어 가는 것이 2002'독서의 목적입니다.

■ 전략분석



4 ~ 8월까지의 독서실태는 평균 월 14권으로 권수에서는 전반적인 기대치를 충족시켜주고 있으나 소설분야의 여전히 높은 관심과 과학기술 지식의 습득에 부족함이 문제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소설분야는 문학작품과 고전 중심의 독서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며, 과학기술에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 독서노트의 필요성

기본적으로 겉 훑기 식의 독서를 진행했다고 생각. 나름대로 책에서 아이디어를 뽑아내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독서노트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독서노트만 보더라도 그 책을 읽은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양식을 작성해야겠습니다.

■ 세부 내용

경제/경영(18) : 26%

골드만삭스/리사 엔들리크, 브랜드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신형암, 큰 장사꾼 김정태/박태건, 마쓰시타 고노스케의 번영을 위한 지혜, It's your money/코차코스, 빈곤의 경제/바바라 에렌라이히, 필립코틀러의 미래형마케팅/필립코틀러, 마케팅 불변의 법칙/알리스 잭 트라우스, 열보다 더 큰 아홉/정갑영, 우리는 기적이라 말하지 않는다/서두칠, 1원의 경제학/윤영무, 미국공인회계사 완전합격가이드/최창호, CEO가 당신이 알고 있길 원하는 것들/램 카렌, 죽은 경제학자들의 살아있는 아이디어/토드 부크홀츠, Next Society/피터 드러커, CEO가 되는 길/토머스 네프, 초일류 기업의 비즈니스 대실수/데이비드릭스, How to Become A Great Boss/제프리 J. 폭스

- 큰 장사꾼 김정태에서 기업경영의 복합적인 면을 볼 수 있어 좋았고, 우리는 기적이라 말하지 않는다에서 리더쉽의 기본인 솔선수범의 사례를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마쓰시타 고노스케의 글에서는 지금과 같은 무한경쟁시대의 지식사회에서는 조금 맞지 않은 생각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마케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경제학의 테두리를 보았습니다. 경제분야는 경제학원론부터 차근차근 봐야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피터드러커였습니다.

인문(18) : 26%

영화는 영화다/V.F 퍼킨스, 공지영의 수도권기행/공지영, 대중문화의 겉과 속/강준만, 문자의 역사/조르주 장,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베르나르베르베르, 축구의 역사/알프레드 바알, 신문읽기의 혁명/손석춘, 고래의 삶과 죽음/이브코아, 프로이트 : 20세기의 해몽가/피에르 바뱅, 오류를 알면 논리가 보인다/탁석산, 잠재의식의 힘/조셉머피, 지식의 다른길/존 브룸필드, 노무현 상식 혹은 희망, 잊혀진 이집트를 찾아서/장 베르쿠테, 세계를 놀라게한 히딩크의 힘/최영균, 성으로부터의 자유/김종만, 노무현과 자존심/강준만, 우리안의 파시즘/임지현

- 새로운 것을 알아 가는 것은 기분 좋은 일입니다. 계속적으로 인류의 문화를 집대성한 시공 디스커버리 총서를 읽고 있으며, 논리학과 심리학에 차츰 관심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신문 읽기의 혁명에서 신문사의 구조를 보다 잘 파악할 수 있었으며, 우리안의 파시즘으로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넓혔습니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노무현씨의 관심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소설(15) : 21%

별/알폰스 도데,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쟁이/서광현, 연금술사/파울로코엘리, 개미 1,2,3/베르나르 베르베르, TV동화 행복한 세상/이미애, 계걸음으로 가다/권터그라스, 마이너리티 리포트/필립 K딕, 키친/요시모토 바나나, 마이너리그/은희경, 아홉 살 인생/위기철, 철도원/아사다지로, 어머니/김정현, 장미도둑/아사다 지로

- 무엇보다 철도원의 아사다지로를 만난 것이 큰 행운이었습니다. 철도원과 장미도둑을 통해 감수성을 높일 수 있었고,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통해 무한한 상상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금술사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꼭 추천해주고 싶은 도서이며, 어머니와 TV동화 행복한 세상을 통해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성공/처세(9) : 13%

Big, Bucks!/캔 블랜차드, WOW Project 1 : 내 이름은 브랜드다/톰피터스, 사자같이 젊은 놈들/구본형, 어머니 저는 해냈어요/김규환, 신화는 없다/이명박, 내 인생을 바꾼 스무살 여행/브라이언트레이시, 일 잘하는 사람들의 시간관리/제프리모스, 80/20법칙/리처드 코치,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구본형

- WOW Project를 통해 개인브랜드의 개념을 확실히 잡을 수 있었고, 사자같이 젊은 놈들을 통해 주위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를 통해 나를 다시 한 번 되돌아 보았으며, 시간관리 책들을 바탕으로 저만의 시간관리 기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철학/에세이(6) : 8%

톨스토이처럼 죽고 싶다/김별아, Anger(화)/턱낫한, 산중에서 길을 물었더니/서화동, 철학속으로 들어가기/장 폴 주아리,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리처드 칼슨, 내 인생은 내가 만든다 /오토다케

- 철학 속으로 들어가기를 통해 나 자신이 사회적 환경에 길들여져 나만의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톨스토이처럼 죽고 싶다에서 예정된 배반(?)이란 단락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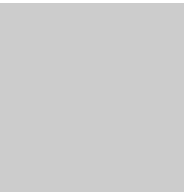
과학(4) : 6%

시간의 역사/스티븐 호킹, 로봇의 역사/도지마 와코, 게놈이 세계를 지배한다/나카무라 유우스케, 유전자의 세기는 끝났다/이틀린 폭스켈러

- 과학은 역시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게놈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책과 유전자의 세기는 끝났다라는 책을 통해 생명공학의 현주소와 가능성을 알 수 있었고, 기대감에 비해 아직은 많은 것이 부족한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 제언

독서의 초반기에서는 무엇을 안다는 데 즐거움을 느꼈으나 점점 더 많은 책을 읽을수록 책을 덮음과 동시에 많은 내용을 잊어버리게 되어 굉장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나, 둘씩 학습한다면 조금씩 쌓여서 언젠가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덕수에게...

이 장만 분리하신 후 동봉되는 우편봉투에 넣어서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한마디가 한국의 미래를 짊어질 나무를 더욱 크게 만듭니다.

1) 첫 번째 분석물 “짧은 열흘 긴 배움”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이번 분석물의 고쳐주고 싶은 점이 있다면?

3) 이번 분석물에서 좋았던 점이 있다면?

4) 경영자를 향한 끝없는 도전에 한마디 더하신다면?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는 덕수가 되겠습니다.